



7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 3층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방향정책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뉴스시스

‘통합의 키’ 공론화, ‘마지막 퍼즐’ 시·도의회 동의를 관심 집중

2월 말 특별법 통과 마지막 노선... “주권자 패싱” 없어야
 권역별 속의제, 설명회, 설문, 의회 ‘공론화 TF’ 구성도
 의회 동의→정부안 확정→특별법 제정→대통령 재가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대세론과 함께 속도감있게 진행중인 가운데 ‘통합의 키’라 할 수 있는 주민공론화와 ‘마지막 퍼즐’인 시·도의회 동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7일 지역 정·관계에 따르면 행정통합 절차로는 통상 공감대 형성, 제도 설계·입법, 최종 통합 등 크게 3단계를 거치게 된다.

시·도 단체인 통합 합의 선언을 시작으로 권역별 설명회, 시민 공론화, 주민투표 또는 시·도의회 동의 절차를 밟게 된다. 이 과정에서 명칭, 청사 소재지, 권한 배분, 특별법 마련, 조직과 정원 재설계, 조례·규칙 정비 등이 이뤄지게 된다.

광주시장·전남지사의 대통합 합의에 이어 정부·여당과 정치권을 중심으로 찬성론이 대세를 이루면서 이제 관심사는 주민 공론화와 최종 관문이라 할 수 있는 시·도의회 동의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공론화는 주민 설명회와 권역별 토론회, 설문조사, 주민자치회 간담회를 주축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통합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은 ‘권역별 속의’를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6월3일 통합단체장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2월28일까지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며 “광주권, 서부권, 동부권 등 권역별 속의의 시간을 갖겠다”고 밝혔다. 국무총리실,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공론의 장도 제안했다.

광주·전남 상당수 국회의원과 시·도 광역의원들도 통합에 원론적으로 찬성하며 절차적 타당성을 확보하고 ‘주권자 패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주민 공론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광주·전남 시·도의회도 의원 총회와 함께 빠른 시일 내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행정통합 공론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통합 과정에서 대의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간다는 방침이다.

한 광역의원은 “분위기에 휩쓸려 동의하는 구조로 가서는 안되고, 통합의 효과와 우려스런 부분을 주민들이 알고 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해 당사 주민자치회 간담회부터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통합의 마지막 관문은 시·도의회 동의로, 관련 법에 따라 주민투표를 대체할 것으로 보인다. 주민투표는 강행규정이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지방자치법 제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를 폐지·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는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라 주민투표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명시돼 있다.

주민투표법 제8조는 지자체 폐지·설치·분리·통합 시에는 국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해당 지자체장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와 별개로 주민자치법 제4조에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구성을 달리 하려는 경우에는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고 강행규정이 있으나, 이는 지자체 내부에서 내각제 형식 등으로 단체장과 의회와의 관계 변경이 있을 때 주민투표를 거처하는 뜻으로, 지자체 통합과는 무관하다는 게 유권해석이다.

정·관계자는 “주민투표는 민주적, 정치적 정당성을 얻을 수 있지만 이번 통합 논의는 대의명분은 있는데 시간이 촉박한 게 특징”이라며 “이 때문에 절차가 복잡하고 최소 500억원이 드는 주민투표보다는 법적, 절차적 타당성이 보장된 의회동의 후 정부 통합안 확정, 특별법 제정, 대통령 재가 순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승원 기자

“불이익 배제, 권한 이양” 광주·전남 통합 6대 쟁점은

40년 만의 광주·전남 통합이 지역발전의 주춧돌이 되기 위해선 불이익 배제를 기본으로 한 일대일 상생 통합과 분권형 상향식 통합, 실질적인 권한 이양이 성과의 관건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남연구원 김대성 상생협력단장은 7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정책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서 통합의 주요 쟁점과 해법을 크게 6가지로 나눠 제시했다.

시·도지사 통합 선언 후 처음으로 열린 토론회에서 김 단장은 ▲통합의 기본원칙 ▲자치단체 종류 ▲특별법안 구성 ▲권한 특례 유형 ▲교육자치 ▲행정통합의 미래상으로 나눠 설명했다.

김 단장은 우선 통합의 기본원칙으로 ‘소의 없는 상생’과 ‘지방 분권’에 초점을 뒀다. 통합 과정에서 취약계층이나 낙후지역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역별 여건에 따른 차등 지원, 분권형 통합 원칙을 명확히 했다.

김 단장은 “위로부터의 지시가 아닌 시·도민이 참여하는 상향식 통합을 통해 광주

전남연구원 김대성 단장, 통합 선언 후 첫 토론회서 제시 일대일 상생·분권형·상향식 통합, 통합모델로 ‘특별시’ 제안 “권한 이양, 교육자치·경찰자치 강화, 3대 거점경제권 완성”

와 전남이 대등한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이 이번 논의의 출발선”이라고 말했다.

통합모델로는 (가칭)‘광주전남특별시’로 제시했다. 광역 단위는 하나로 합치되, 기존 시·군·자치구 등 기초자치단체는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유력안으로 내놓았다.

김 단장은 “광역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면서도 기초자치의 자율성을 보존하려는 취지지만, 향후 광역과 기초 간의 사무 배분과 기능조정 문제는 정교한 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통합의 법적 도대가 될 권한 이양 특별법 제정도 필수과제로 꼽았다. 대구·경북이나 대전·충남의 선례처럼, 수 백 개의 조문과 파격적인 특례를 담은 종합특별법이 마련돼야 하고, 중앙 정부 간섭을 최소화하고 지역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고

도의 자치권 확보 여부가 통합의 실효성을 가를 것이라는 관측이 깔렸다.

김 단장은 특히 특별법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선 실질적 권한 특례에 집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국가 주요관한을 통째로 이양받거나 시행령 사항을 지방조례로 전환하는 구조를 갖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를 통해 통합지자체가 예산과 정책, 즉 자율 행정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교육자치와 자치경찰의 통합 역시 주요 쟁점으로 거론됐다. 김 단장은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를 실현하려면 교육감 선출 특례와 치안관한을 행정 체계와 유기적으로 결합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교육과 치안 서비스가 통합 행정과 시너지를 낼 때

시·도민이 체감하는 통합의 완성도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단장은 쟁점 설명에 이어 행정통합이 지향하는 미래상으로 ‘3개 권역별 특화 발전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광주권(광주·나주·담양·화순·영광·함평·장성), 목포권(목포·무안·신안·영암·해남·진도·강진·완도), 순천·여수·광양권(3개시·고흥·보성·곡성·구례·장흥)으로 나눠 권역별 거점 경제권을 구축하자는 취지다.

광주권은 육상교통을 중심으로 교육·문화, 에너지 신산업, 인공지능(AI), 모빌리티, 바이오를, 목포권은 항공교통을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해양관광, 국제교류, 수산업과 조선업, 순천·여수·광양권은 해상교통을 중심으로 화학·물류, 철강, 이차전지, 생태해양관광을 집중 육성하자는 전략이다.

김 단장은 “공간적으로는 중·서·동부 권역별 특화발전 전략을 통해 균형발전과 광역 경쟁력을 동시 달성하는 것을 지향하자는 전략”이라고 밝혔다. /기동취재부

Self 장어명가 청산 광주점

장어명가 청산 광주점 - 약품을 쓰지 않은 장어만 판매

영광 법성포 청산양만 명품 장어

無항생제 無균 無소독제!

1일 18회 순환여과 및 미생물 배양 청정시스템으로 국내산 청정 명품장어

HACCP
(위해요소중점관리우수)
해양수산부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HACCP) 적용지정업소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증번호: 제 AQ-0026

무항생제
(NON ANTIBIOTIC)
해양수산부

인증기관명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증번호: 제15-18-0001호

전국 500여 양만장중 무항생제 지정업소 단 1곳
전국 500여 양만장중 HACCP 지정업소 단 3곳

예약문의 T. 062)233-9592

광주 동구 내남동 330-3(월남지구 호반2차 옆 슬바우주유소 옆)

저희 장어명가 청산 장어는 국내유일 무항생제 인증과 해썬(Haccp)으로 인증된 양어장에서 "무항생제, 무균, 무소독제"로 직접키운 명품장어입니다. 무항생제 장어 최고 품질! 장어명가 청산 광주점에서 모시겠습니다.